

2023. 6. 8.(목) 조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3년 6월 7일 오후 14: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

담당 부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친환경차량과장	정순규	02-2133-3580
친환경차량정책팀장	권혁영	02-2133-3582
담당자	곽동호	02-2133-4413
관련 누리집	https://www.seoul.go.kr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3쪽

- 맑은 서울 만들기 1세대는 CNG, 2세대는 전기·수소차로 -

서울시, 경유 공항버스 '30년까지 100% 수소버스로 전환 나선다

- '수소모빌리티 선도도시 서울' 추진...7일 환경부, SK E&S, 현대차, 티맵과 협약
- '26년까지 전체의 70% 수준인 300여대, '30년까지 모든 공항버스의 수소버스 전환 추진
- 시내버스, 통근버스 등 포함 '26년까지 1,300여대 도입 목표... 버스충전소 5개소 구축
- 수소의 친환경성, 안전관리 등 사회적 수용성 높이기 위한 홍보·교육 협력 강화

서울시가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경유 공항버스를 '26년까지 전체 버스의 70% 수준인 300여대, '30년까지 100%에 해당하는 450여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수소 모빌리티 선도도시 서울' 추진을 위해 6월 7일(수) 14시 서울시청에서 환경부, SK E&S, 현대자동차, 티맵모빌리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소모빌리티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 업무협약식은 오세훈 서울시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추형욱 SK E&S 대표이사, 장재훈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이종호 티맵모빌리티 대표이사가 참석한다.

- 서울지역 온실가스의 19.2%가 수송부문에서 배출되는 가운데, LNG·전기 등 친환경버스로 운행 중인 시내버스와 달리, 450여대의 공항버스는 경유버스로 운행하고 있다.
 - 공항버스 1대의 왕복 1회당 주행거리는 평균 137km, 하루에 평균 4회 왕복 548km를 운행하고 있어 시내버스 1일 평균 주행거리 229km와 비교했을 때 매우 긴 편이다.
 - 대형 경유버스는 일반 승용차 대비 온실가스 30배, 미세먼지는 43배 이상 배출해 친환경차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수소버스는 충전 시간이 30분 이내로 전기버스보다 더 짧고, 주행거리는 내연기관 차량과 비슷한 약 600km 이상으로 장거리 노선을 운행하는 공항버스에 적합하다.

- 시는 환경부, SK E&S, 현대자동차,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공항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의 친환경성, 안전성 등 시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 등을 협약기관들과 공동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 서울시는 '26년까지 300여대 공항버스 포함 대중교통 1,300여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고 버스 전용 충전소 5개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 환경부는 「수소모빌리티 선도도시 서울」 조성을 위해 대중교통, 공항버스 등 수소버스 전환 및 충전소 구축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협력한다.
 - SK E&S는 안정적인 액화수소 생산·공급, 액화수소 충전 기반 시설의 적기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 현대차는 저상·고상 수소버스 적기 생산 및 공급에 협력한다.
 - 티맵모빌리티는 경유 공항버스 등을 수소버스로 조기에 전환하고 협력한다.

- 서울시는 지난 '20년부터 수소 저상버스 27대를 시내버스로 보급하였으며, 올해 출시되는 고상 수소버스 공항버스로 보급할 예정이다. 향후 충전소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해 '26년까지 1,300여 대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 또한, 시는 수소버스의 안정적 보급을 위해 '26년까지 5개의 공영차고지에 버스 전용 충전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강서 공영차고지에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를 설치해 시내버스 20여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중으로 진관2 공영차고지에 액화수소 버스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 현재 서울지역에 강서 수소 버스충전소 3기를 포함한 총 9개소 13기의 수소충전소가 있다.
- 한편,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 '02년부터 경유 시내버스를 액화천연가스(CNG)버스로 교체하기 시작해 '11년 시내버스 전체물량에 해당하는 7천 4백여 대의 교체를 마쳤다. '10년부터는 전기버스를 도입해 '22년 말 기준 1천여 대(시내버스 837대, 마을버스 85대, 어린이 통학버스 77대, 통근버스 17대)를 보급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도시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가장 큰 영향이 있다”라며 “시내버스 전체를 CNG 연료로 바꾸어 대기질을 크게 개선한 경험으로 공항버스의 수소버스화를 추진해 온실가스 감축에 앞서가겠다”라고 말했다.